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제 [] 선택

1.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2020 6평 2번)

- 인간의 도덕성 발달은 정의 윤리가 놓친 배려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새롭게 조직되어야 한다. 배려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처지에 걸맞는 도움을 주어야 하며, 배려받는 사람 또한 상대방의 도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 윤리적 배려는 자연적 배려가 발휘되기 힘들 때 요청된다. 의무감에서 남을 돕는 윤리적 배려보다는 욕구와 성향에 따라 남을 돕는 자연적 배려가 도덕적으로 선호된다.

- ① 배려 윤리는 사람들 간의 상호 의존성과 유대감을 중시한다.
- ② 배려보다는 논리적 추론을 통해 도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③ 자연적 배려는 이성애 의해 동기가 부여됨으로써 실천된다.
- ④ 자연적 배려는 모성애와 같은 윤리적 배려에 근거하고 있다.
- ⑤ 정의 윤리와 배려 윤리는 서로 배타적이어서 양립할 수 없다.

2.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20 6평 18번)

갑: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도덕과 입법의 기본 원리이다. 이러한 원리는 이성과 법의 손길로 더없이 행복한 구조를 세우려는 목적을 지닌 체계의 토대가 된다.

을: 행복의 원리가 준칙들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결코 의지의 법칙들로 쓰일 준칙들을 제공할 수는 없다. 행위의 도덕성은 오직 보편적 도덕 법칙에 의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

<보 기>

- ㄱ. 갑: 도덕은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ㄴ. 을: 도덕의 목적은 모든 이성적 존재들의 행복 증진이다.
 ㄷ. 을: 의무가 문제일 때에는 자신의 행복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ㄹ. 갑, 을: 보편적 도덕 원리를 따라야 도덕적 행위가 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3. 다음은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에 대한 평가를 정리한 노트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20 9평 11번)

- 갑은 대다수 사람들의 행복을 최대화하는 것이 옳은 행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갑의 주장은 정의롭지 못한 행위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도 옳은 행위가 되는 부적절한 경우를 발생시킨다. 또 인간의 내면적 동기를 소홀히 하고 쾌락의 질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 을은 정언명령으로 표현되는 도덕 법칙을 모든 사람이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을의 주장은 형식에 치우쳐, 도덕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에게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도덕 법칙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아 지나치게 엄격하며, 의무가 상충할 때 이를 해결할 실질적 지침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① 갑: 인간의 행위가 고통과 쾌락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 ② 갑: 행위의 옳음은 결과와 동기를 모두 고려해야 판단 가능하다.
- ③ 을: 의무에 맞는 행위는 도덕적 행위라고 간주해야한다.
- ④ 을: 보편화 가능한 행위 준칙은 도덕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⑤ 갑, 을: 자신의 행복 증진은 보편적 도덕 원리 수립의 근거이다.

4. 다음은 어느 현대 서양 사상가의 가상 편지이다.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0 수능 20번)

OOO 선생님께

도덕적 행위에 관한 선생님의 편지는 잘 읽었습니다. 저는 선생님과 달리 도덕적 행위에서 사람들이 배려자가 되는 것과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배려는 자연적 배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행위는 유사한 상황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해야하는 도덕적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의무의 보편적 법칙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우리가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의 문제와 무관하게 우리의 도덕적 의사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 선생님의 입장은 ㉠고 생각합니다. ... (후략).

- ① 동정심과 같은 감정을 의무의 근거로 삼아야 함을 강조한다.
- ② 도덕 법칙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③ 배려의 의무가 자연적 배려에 대한 경험에서 발생함을 강조한다.
- ④ 도덕 교육의 과제가 이성애 의한 추론 능력의 함양임을 간과한다.
- ⑤ 인간관계의 특수한 맥락에 따른 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됨을 간과한다.

5.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2020 9평 16번)

갑: 도덕적 삶의 원천은 인간의 상호 작용을 넘어서지 않는다. 우리는 배려하는 사람으로서 주의를 기울이고 응답을 하게 된다. 상대방과 함께 느끼고 상대방을 위해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이러한 실천의 동기를 부여한다.
을: 나는 과거와 함께 태어났다. 그리고 이 과거로부터 개인주의적 방식으로 자신을 분리시키려는 시도는 나의 현재 관계들을 일그러뜨리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적 정체성의 소유와 사회적 정체성의 소유는 일치한다.

- ① 갑: 배려는 친밀한 관계에서만 실천 가능하다.
- ② 갑: 자연적 배려와 윤리적 배려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이다.
- ③ 을: 도덕 판단 과정에서 인간의 품성과 관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 ④ 을: 개인이 추구해야 할 목적과 역할은 선천적으로 정해져있다.
- ⑤ 갑, 을: 도덕 판단은 구체적 상황과 맥락에 구애받지 않는다.

6. (가)의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19 수능 15번)

(가)	갑: 죽음은 부스럼이 사라지거나 종기가 터지는 것과 같고 삶은 몸에 균살이 붙거나 혹이 달리는 것과 같다. 진인(眞人)은 구속하는 모든 것을 잊은 채 속세를 벗어나 한가롭게 무위(無爲)의 경지에서 자유로이 노닌다. 을: 죽음의 홍수가 잠든 마을을 휩쓸어 기듯 감각적 쾌락에 집착하는 이들을 휩쓸어 간다. 오온(五蘊)의 결합인 몸이 이지랑이처럼 무상(無常)한 것임을 알고 몸에 대한 애착을 제거하면 죽음을 벗어나 열반(涅槃)에 이른다.
(나)	

<보 기>

ㄱ. A: 삶과 죽음은 기(氣)가 모이고 흩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ㄴ. B: 자연의 순리대로 삶을 기뻐하고 죽음을 슬퍼해야 한다.
 ㄷ. B: 현세의 삶에서 쌓은 업(業)에 의해 내세의 삶이 결정된다.
 ㄹ. C: 삶과 죽음은 무명(無明)으로 인해 끝없이 순환하는 것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7. 다음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019 수능 16)

자유는 이념을 나를 자유의 법칙을 따르는 세계의 구성원으로 만든다. 이를 통해 나는 선의지를 의식하고, 나의 모든 행위는 언제나 의지의 자율성에 알맞게 된다. 선의지는 감각적 욕망을 따르는 약한 의지에게 '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도덕 법칙을 만들어 준다. 그런데 자유의 법칙을 따르는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나에게 그 법칙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다.

- ① 자율적이지 않지만 의무에 맞는 행위는 도덕적인 행위이다.
- ② 인간의 자연적인 경향성에 근거한 도덕 법칙을 설정해야 한다.
- ③ 선의지에 따른 행위가 현세의 행복을 항상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의무는 개인에게 도덕 법칙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자율성에 어긋난다.
- ⑤ 자신의 준칙이 보편화 가능하지 않아도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다.

8.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9 수능 17)

갑: 유덕한 사람들은 현재 상황에서 위인들의 업적을 모범으로 삼는다. '실천'은 모범이 될 만한 인물의 품성과 관계를 맺는 것이며, 전통의 업적을 배우는 방법이다.
 을: 여성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인간관계에서의 보살핌과 책임에 있다. 정의의 입장이 전제하는 공정성보다 인간관계에 내포된 인간 심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 기>

ㄱ. 갑: 개인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는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ㄴ. 을: 공정성의 가치와 보살핌의 가치는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
 ㄷ. 을: 배려보다 권리를 도덕성의 핵심 요소로 삼아야 한다.
 ㄹ. 갑, 을: 추상적 도덕 원리보다 삶의 구체적 상황을 중시해야 한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ㄹ

9.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2019 9평 9번)

갑: 행복은 하나의 목적으로서 유일하게 바람직한 것이며, 최대 행복의 원리는 도덕의 기초가 된다. 당사자에게 두 종류의 쾌락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질(質) 높은 가치가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은 결코 최대 행복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을: 행복은 언제나 쾌적함과 관계된 것으로 자신에 대한 최고의 만족 상태이고, 도덕 법칙은 자유의 법칙으로서 자연과 자연적 경향성에 전적으로 독립해 있다. 도덕 법칙 안에서 도덕성과 인간의 행복 사이에 필연적인 연관은 없다.

- ① 갑: 행위의 동기는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아니다.
- ② 갑: 삶의 궁극적 목적은 가능한 한 고통이 없는 최대 행복이다.
- ③ 을: 실천 이성은 의무를 명령할 때 행복을 위한 모든 요구를 수용한다.
- ④ 을: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에게 도덕의 원리는 자율의 원리이다.
- ⑤ 갑, 을: 개별 행위의 도덕성을 판별하는 보편적인 원리가 있다.

10.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9 6평 15번)

(가)	<p>갑: 유용성의 원리는 개인과 사회의 행복 증감 여부에 따라 모든 행위를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원칙이다. 쾌락의 측정 기준에는 일곱 가지가 있다.</p> <p>을: 준칙이란 주관적 실천 원칙이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 대해 타당하다면 그 원칙은 객관적이다.</p>
(나)	

<보 기>

- ㄱ. A: 도덕적인 행위의 판단 기준은 쾌락의 양과 질에 있다.
- ㄴ. B: 보편적 도덕 원리를 준수하면 행복한 삶이 보장된다.
- ㄷ. B: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원리가 있다.
- ㄹ. C: 도덕 법칙은 무조건 따라야 할 명령의 형식으로 제시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1.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2019 6평 10번)

갑: 고립된 자아는 어떠한 합리적 역사도 가질 수 없다. 나는 누군가의 형제이자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개인들은 사회적 관계 내에서 특정한 사회적 공간을 계승한다.
을: 보편적 권리는 공동체 의식의 상실을 보상해 줄 수 없다. 하지만 배려는 공동체 의식에 기반한 관계를 중요시한다. 배려하는 자와 배려받는 자의 반응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① 인간은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주체로 살아야 하는가?
- ② 윤리적 판단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가?
- ③ 덕의 의미를 사회적이고 전통적인 맥락 속에서 찾아야 하는가?
- ④ 배려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필요한 도덕적 덕목인가?
- ⑤ 윤리적으로 행위하기 위해서는 정서와 감정을 고려해야 하는가?

12.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020 수능 3번)

갑: 차등의 원칙이 실현되면 모든 사람들의 처지가 최초의 상황보다 개선되며 사회의 기본 구조 속에서 모든 사람이 사회 협동체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을: 차등의 원칙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지속적으로 침해하지만 취득, 이전 및 교정의 원리에 기반을 둔 정의관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보장한다.

- ① 갑: 사회적 약자의 복리를 위해 개인의 기본적 자유는 제한 가능하다.
- ② 갑: 차등의 원칙에 따라 우연적 여건으로 인한 불평등을 보상해야 한다.
- ③ 을: 재화 소유의 역사적 과정보다 최종적 분배 결과가 중요하다.
- ④ 을: 사회적 우연성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 ⑤ 갑, 을: 정의의 원칙은 타인의 이익을 고려하는 사람들에 의해 도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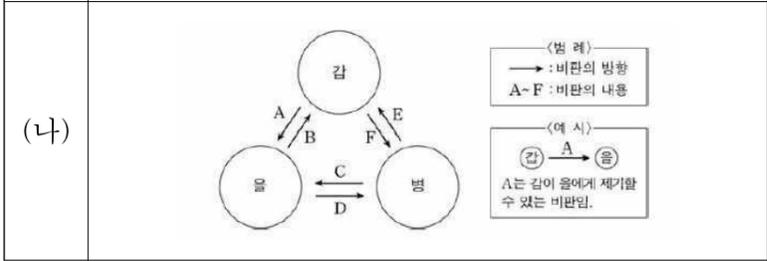
13.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020 수능 7번)

갑: 자본가의 수중에 있는 모든 자본을 사회 전체 구성원의 공동 재산으로 전환시키고, 그 누구의 노동도 타인에게 예속되지 않는 계급 없는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을: 차등의 원칙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지속적으로 침해하지만 취득, 이전 및 교정의 원리에 기반을 둔 정의관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보장한다.

- ① 갑: 이상 사회에서는 분업의 장려로 구성원의 자립성이 회복된다.
- ② 갑: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는 소수의 자본가에게 부를 집중시킨다.
- ③ 을: 영역 간 가치의 자유로운 전환은 분배의 평등을 촉진한다.
- ④ 을: 사회적 가치들은 서로 다른 사회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 ⑤ 갑, 을: 경제적 재화는 사회 구성원의 필요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14.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20 수능 19번)

(가)
 갑: 자연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이다. 사람들은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 평화를 추구하라는 자연법에 따라 국가의 구속을 받아들인다.
 을: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가 아니라 불완전한 평화 상태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불완전한 상태에서 벗어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국가의 구속을 받아들인다.
 병: 자연 상태는 평화 상태에서 점차 불평등한 예속 상태로 이행한다. 사람들은 시민적 자유의 보장을 위해 자신을 일반 의지에 의해 양도하고 국가의 구속을 받아들인다.



- ① A, F: 개인의 자기 보존 욕구가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침을 부정한다.
- ② B: 권력 분할보다 집중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최선책임을 부정한다.
- ③ C: 입법권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에게 위임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④ D: 계약 이후에는 국가만 시민에 대한 형벌권을 소유함을 간과한다.
- ⑤ E: 법률에 복종하는 시민이 법률의 제정자가 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15. 사회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2020 9평 13번)

갑: 인간은 자연 상태의 평화로움과 온갖 특권에도 불구하고 상호 간 다툼을 해결할 법률과 공평한 재판관 및 집행 권력의 부재라는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로부터 정치 사회뿐 아니라 입법권과 행정권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을: 사회 계약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 일반 의지의 힘으로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둘째, 각 개인은 전체와 결합되지만,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 ① 갑은 국가 권력 분립이 가능하지도 정당하지도 않다고 본다.
- ② 갑은 자연 상태의 인간은 침해받아서 안 될 권리를 지닌다고 본다.
- ③ 을은 시민의 주권은 계약으로만 정부에게 양도될 수 있다고 본다.
- ④ 을은 사유재산제가 성립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해소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시민의 동의 없이도 정치적 복종 의무가 정당화된다고 본다.

16.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020 9평 18번)

갑: 분배 정의에 관한 기존의 원리들은 받는 사람에게 관심을 주는 반면 주는 사람의 권리는 무시한다. 그러므로 분배 정의를 논함에 있어 '~에 따라 받을 만한'이란 표현을 '~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가진'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야 한다.
 을: 부와 소득의 분배 그리고 권한 있고 책임 있는 직위와 직책은 기본적 자유 및 기회의 평등 모두와 양립 가능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들은 그것의 불평등한 분배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 ① 갑: 소유의 정당성 판단에는 역사성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 ② 갑: 천부적 재능으로 취득한 이익은 타인에게 이전될 수 없다.
- ③ 을: 최소수혜자의 이익은 정의의 원칙 합의 이전에 보장된다.
- ④ 을: 원초적 입장의 합의 당사자들은 자기 삶의 전망에 무관심하다.
- ⑤ 갑, 을: 분배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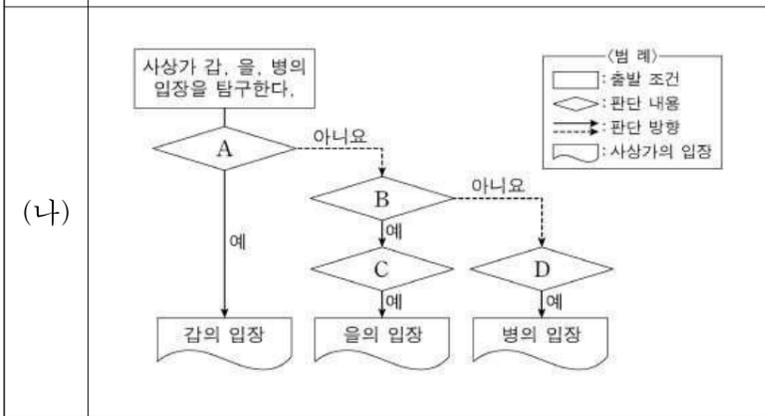
17. 갑, 을은 사회사상가들이다. 을의 입장에서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0 6평 3번)

갑: 일단 신민이 된 사람은 주권자에게 저항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을 하나의 인격으로 통일한 것이 국가인 만큼, 이론적으로 주권자의 행위는 곧 신민 자신의 행위이다. 한번 계약을 맺으면 파기할 수 없다.
 을: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한 자연 상태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판정할 공평한 재판관이 없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람들의 동의로 정부가 구성되며, 이 정부는 시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의 보존을 주목적으로 한다.

- ① 구성원들의 안전 보장이 사회 계약 체결의 결과임을 모르고 있다.
- ② 사회 계약이 구성원의 만장일치로 결정되어야 함을 모르고 있다.
- ③ 사회 계약의 안정성은 국가 권력의 강제력에 비례함을 모르고 있다.
- ④ 자기 보존 욕구의 실현이 사회 계약 합의를 위한 토대임을 간과한다.
- ⑤ 계약을 위반한 정치권력에 대한 적극적 저항이 정당함을 간과한다.

18.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20 6평 10번)

(가)
 갑: 각각의 분배의 영역에서는 오직 특정한 기준과 제도들만이 정의롭다. 상이한 사회적 가치들은 상이한 근거에 따라 상이한 주체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
 을: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재화의 분배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권한을 갖는 직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직책은 모두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병: 개인들은 그들의 자연적 자산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가진다. 어떤 것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는 경우 이로부터 유출되는 모든 것에 대해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보 기>
 ㄱ. A: 한 분배 영역의 가치가 다른 분배 영역의 가치를 지배해야 하는가?
 ㄴ. B: 자연적 우연성에 의한 불평등은 사회 제도에 의해 개선되어야 하는가?
 ㄷ. C: 모든 사람의 경제적 처지를 향상시킨다면 공정한 기회 균등을 제한할 수 있는가?
 ㄹ. D: 소유물의 취득과 이전이 정당하다면 빈부의 격차도 정당한가?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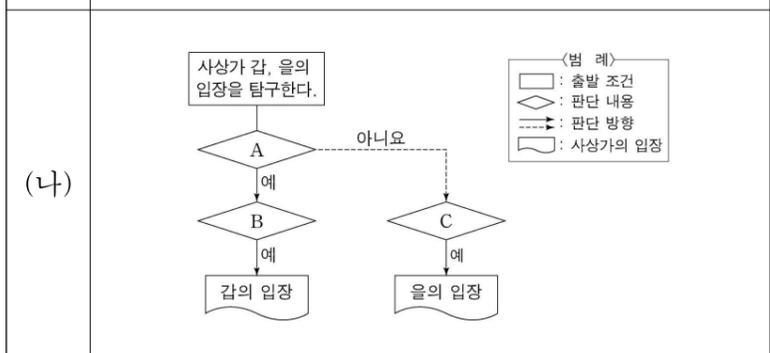
19.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9 수능 6번)

갑: 입법권은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위임된 권력이다. 절대 군주가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것보다 입법권과 행정권으로 국가 권력을 분할하는 것이 낫다.
 을: 입법권은 주권의 파생물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권력을 주권의 일부분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또한 주권은 일반 의지의 행사이므로 결코 양도될 수도 없다.

- ① 갑: 인간의 소유권은 절대 군주에 의해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 ② 갑: 시민의 계약의 목적을 위반한 입법부에 저항할 수 없다.
- ③ 을: 통치자는 일반 의지를 대행하므로 법의 지배로부터 자유롭다.
- ④ 을: 주권은 시민이 선출한 대의원을 통하여 대표되어야만 한다.
- ⑤ 갑, 을: 사회 계약 이후에 국가는 계약 위반자에 대한 처벌권이 없다.

20.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9 수능 9번)

(가)
 갑: 노동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는 강제 노동과 같다. 노동자가 행한 노동의 결과를 점유하는 것은 노동자로부터 그의 시간을 빼앗는 것과 동등하다.
 을: 노동자가 자본주의하에서 행하는 노동은 강제 노동과 같다. 노동자는 소외된 노동으로 인해 일하지 않을 때 편안하고 일할 때는 편안하지 못하다.



<보 기>
 ㄱ. A: 사적 소유를 보장하면서도 이상적인 분배가 가능한가?
 ㄴ. B: 빈곤층의 복지를 위해 부유층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부당한가?
 ㄷ. B: 노동 투입은 최초 취득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유일한 조건인가?
 ㄹ. C: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생산하면 할수록 더 가난해지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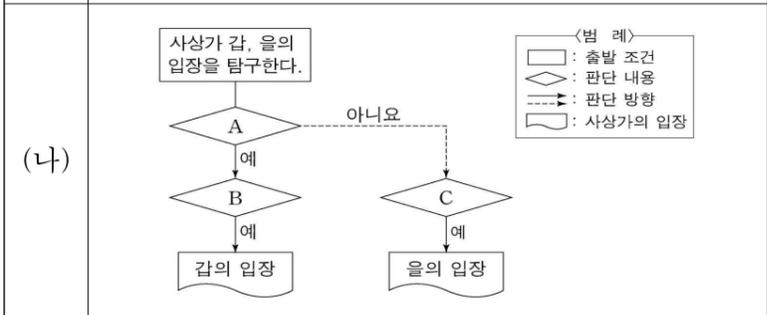
21.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9 9평 7번)

나는 공리주의가 사회의 기본 구조를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의 체계로 해석한다고 본다. 공리주의는 어떠한 분배 상태가 행복의 최대 총량을 산출하는지를 판단할 독립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정의의 체계는 우연한 여건들의 끊임없는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반면 나의 순수 절차적 정의관은 공리주의의 이러한 문제점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령, 게임을 예로 들어보자. 게임이 자발적으로 성립되고 아무도 속이지 않는 등 공정했다면 게임이 끝난 후 게임의 결과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처럼 나의 순수 절차적 정의관이 의미하는 것은 ㉠는 것이다.

- ① 공정한 절차를 따르게 되면 균등한 분배를 보장받을 수 있다
- ② 정의로운 결과를 판단할 기준은 있지만 그 결과를 보장할 절차는 없다
- ③ 공정한 절차를 따르더라도 정의롭지 못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 ④ 결과의 공정성을 결정할 기준은 없지만 공정한 절차를 고안할 수 있다
- ⑤ 결과의 공정성을 결정할 기준도, 공정한 결과를 보장할 절차도 없다

22.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19 9평 17번)

(가) 갑: 정의로운 분배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의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첫째, 기본적인 자유는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경우에 한해 정당화된다.
 을: 정의로운 분배는 영역 간 가치의 일반적 전환을 허용하지 않는다. 특정 영역의 사회적 가치 X는 어떤 사람이 다른 영역의 가치 Y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치 X의 의미와 관계없이 Y를 소유한 사람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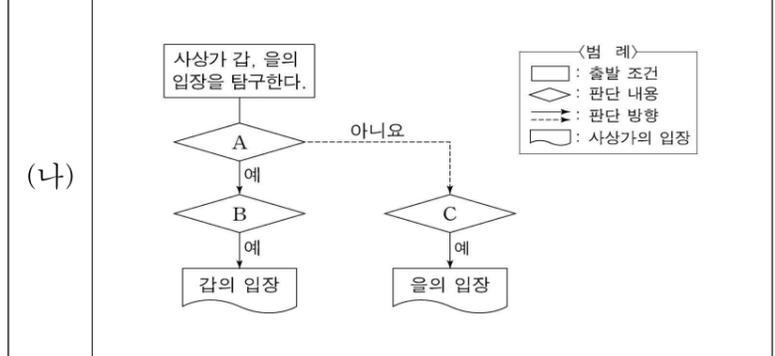
<보 기>

ㄱ. A: 정의의 원칙은 공정한 가상적 상황에서 선택되어야 하는가?
 ㄴ. A: 정의의 실현을 위해 모든 불평등을 제거해야만 하는가?
 ㄷ. B: 경제적 이득으로 보상된다면 기본적인 자유의 침해는 정당한가?
 ㄹ. C: 가치의 분배 기준은 해당 가치의 사회적 의미에 따라 다른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3.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9 6평 17번)

(가) 갑: 개인의 자연적 재능은 단지 운일 뿐이며, 소득과 부의 분배는 자연적 재능이 갖는 자의적인 영향이 누적된 결과이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자연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한다.
 을: 개인의 자연적 재능이 운의 문제라는 사실로부터 자연적 재능이 공동의 자산이라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는 개인의 자연적 재능을 그 자신의 소유로 간주한다.



<보 기>

ㄱ. A: 다수를 위해 소수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부당한가?
 ㄴ. B: 차등의 원칙은 자연적 우연성의 영향을 완화하는가?
 ㄷ. C: 시장의 원칙에 따른 국가 개입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하는가?
 ㄹ. C: 분배의 결과보다 소유 과정의 정당성을 중시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24. 다음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9 6평 11번)

이익을 추구하는 본성으로 인해 인간은 정부에 복종한다. 안전과 보호라는 이익은 정부 제도 수립의 근원적 동기이자 우리가 정부에 복종하는 원천이다.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고 독립적일 때에는 결코 이러한 이익을 획득할 수 없다. 이 이익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정부에 저항하는 것에 반감을 느끼며, 다른 사람이 정부에 저항하는 것에도 불쾌감을 느낀다.

- ① 안전한 삶은 정치 공동체가 없더라도 항상 쉽게 향유할 수 있다.
- ②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에서 정부에 대한 복종의 의무가 생겨난다.
- ③ 국가에 거주하는 이유만으로도 항구적인 복종의 의무가 부과된다.
- ④ 국민이 정부에 복종하는 것은 사회 질서의 유지와 무관하다.
- ⑤ 정부에 복종하기로 명시적 동의를 한 사람만 정치적 의무가 있다.

25.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20 수능 16)

색(色)을 즐거워하지 말고 색을 찬양하지 말며 색을 취하지 말고 색에 집착하지 말라. 무슨 까닭인가? 만일 비구가 그럴 수 있다면, 곧 색을 즐거워하지 않게 되어 마음이 해탈하기 때문이니라. 수(受), 상(想), 행(行), 식(識)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오온(五蘊)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보 기>

ㄱ. 오온의 실상(實相)을 바르게 알아야 해탈할 수 있다.
 ㄴ. 만물은 무상(無常)하며 현실적 삶 그 자체는 고통이다.
 ㄷ. 불변의 실체로서의 '나'에 근거하여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ㄹ. 모든 고통의 발생과 소멸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존재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6. 다음 고대 중국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2020 9평 3번)

성인(聖人)은 아무런 속박이 없이 자연에 노닌다. 지식을 재앙의 근원으로 여기고, 예의 규범을 몸을 얽매는 갖풀로 여기며, 도덕을 교제의 수단으로 여기고, 기교를 장사하는 솜씨로 여긴다. 성인은 모략하지 않으니 어찌 지식이 필요하고, 꺾고 다듬지 않으니 어찌 갖풀이 필요하겠는가?
 *갖풀: 짐승의 뼈나 가죽을 고아 굳혀 만든 풀

- ① 무명(無明)에서 비롯되는 윤회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야 하는가?
 ② 성인의 도를 구현하기 위해 도덕적 규범을 실천해야 하는가?
 ③ 의(義)를 쌓아 자연과 하나 되는 호연지기를 길러야 하는가?
 ④ 시비와 선악을 모두 초월하여 마음을 깨끗이 비워야 하는가?
 ⑤ 백성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인과 예를 가르쳐야 하는가?

27.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2018 수능 20번)

인간은 오로지 폭력과 기만이 요구되는 가혹한 자연 상태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의 일부는 인간의 정념에서, 일부는 인간의 이성에서 생겨난다. 인간을 평화로 향하게 하는 정념으로는, 죽음에 대한 공포, 생활의 편의를 돕는 생활 용품에 대한 욕망, 그러한 생활 용품을 획득할 수 있다는 희망 등이 있다. 그리고 이성은 인간들이 서로 합의 할 수 있는 평화의 규약들을 제안한다.

<보 기>

ㄱ. 시민은 계약 파기를 통해 언제든지 주권자를 교체할 수 있다.
 ㄴ. 자기 보존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합의에 의해 국가가 성립한다.
 ㄷ. 인간은 언제나 이기적이므로 이성적으로 행위할 수 없다.
 ㄹ.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와 불의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8.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2018 9평 7번)

갑: 국가의 단일한 최고 권력인 입법부는 사회에서 인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존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행정권이 이러한 입법부의 업무를 무력에 의해서 방해할 때 인민은 그것을 무력에 의해서 제거할 권리뿐만 아니라 예방할 권리도 가진다.
 을: 우리 각자는 신체와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삼아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 아래에 둔다. 다수의 사람들이 결합하여 스스로 일체를 형성한다고 생각하는 한, 그들의 '공동의 보전'과 '일반적 복지'에 대한 관심이라는 단 하나의 의지만을 갖는다.

<보 기>

ㄱ. 갑은 자연 상태에서는 분쟁을 해결해 줄 재판관이 없다고 본다.
 ㄴ. 을은 이상적인 국가는 절대 군주제가 시행되는 국가라고 본다.
 ㄷ. 을은 사유 재산 제도가 인간 불평등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
 ㄹ. 갑, 을은 사회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저항권이 상실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9.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2018 9평 12번)

갑: 모든 쾌락과 고통은 측정될 수 있다. 그 기준은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범위이다. 어떤 쾌락이나 고통이 또 다른 쾌락이나 고통과 연결될 때 그 쾌락이나 고통도 측정될 수 있다. 그 기준은 다산성과 순수성이다.
 을: 어떤 쾌락에는 만족보다 불만족의 양이 많아서 사람들은 그 쾌락 대신에 다른 쾌락을 누릴 수도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불만족의 양이 더 많은 쾌락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불만족의 양이 더 많은 쾌락이 질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이다.

- ① 최대 행복을 가져올 유덕한 행위는 공리의 원리에 어긋나는가?
 ② 행위자가 느끼는 불쾌감과 고통이 그 행위자에게 선이 될 수 있는가?
 ③ 감각적 쾌락과 지적인 활동에서 얻는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있는가?
 ④ 행위의 도덕성은 행위의 결과와 무관한 행위 자체의 옳음에 근거하는가?
 ⑤ 행위자만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행위는 옳은가?

30. 다음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2018 9평 13번)

전제(傳制)의 특성은 하나의 수단을 통해 다른 수단으로만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공직이라는 수단을 통해 우선적인 의료 혜택 등을 얻는 것이다. 복합 평등 체제는 이러한 전제와 정반대이다. 복합 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 X가 시민 Y에 우선하여 공직에 선택된다고 해도, X가 공직에 있다는 이유로 그 외 모든 영역에서 우선적인 혜택이 X에게 주어져서는 안 된다.

- ① 사회적 가치들은 서로 다른 사회에서도 보편적 의미를 갖는다.
- ② 모든 사회적 가치는 필요의 원칙에 의해서 분배되어야 한다.
- ③ 사회적 가치는 그 고유한 의미에 제한되지 않고 사용되어야 한다.
- ④ 복합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지배적 가치는 평등하게 공유되어야 한다.
- ⑤ 어떠한 분배 영역의 가치도 다른 분배 영역의 가치로 전환되면 안 된다.

31. 다음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2018 9평 17번)

인간의 경향성에 관련되거나 인간이 필요로 하는 물건은 시장 가격을 갖는다. 시장 가격은 물건의 상대적 가치에 불과하다. 물건이 아닌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고 그 목적이 유일한 가치이다. 목적 그 자체로서의 인간은 단순히 상대적인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가치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내재적 가치, 다시 말해 존엄성을 갖는다.

- ① 인간의 본능적 욕구에 이끌리므로 도덕 법칙은 의무가 될 수 없다.
- ② 인간은 누구나 실천 이성을 가지므로 비도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③ 도덕 법칙은 무조건적인 명령이므로 자유 의지의 법칙이 될 수 없다.
- ④ 인간을 수단으로 대할 때에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 ⑤ 선의지(善意志)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일반적인 성향이다.

32. 다음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2018 9평 18번)

'실천'이란 혼자 축구공을 열심히 차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경기하는 축구 경기 자체이다. 단순히 혼자 공을 차는 것에는 축구 경기의 전통과 역사를 통해 축적된 내재적인 선이 없다. 이러한 실천이 덕의 척도와 규칙이 된다. 덕은 역사와 전통을 가진 공동체에 내재된 선의 성취를 통해서 얻어진다. 인간은 서사적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실천에 참여할 때 유덕한 사람이 된다.

<보 기>

- ㄱ. 덕은 공동체와 독립된 추상적 도덕 원리를 따를 때 습득된다.
- ㄴ. 의무감에서 억지로 행하는 선행은 유덕한 행위가 되기 어렵다.
- ㄷ. 존경스러운 인격의 모범을 따름으로써 유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 ㄹ. 인간의 유덕한 성품보다 도덕 규칙이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3.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8 6평 16번)

- 덕은 인간 본성의 목적이 되는 행복을 성취하게 해 준다. 덕은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규정하는 방식에 의해 중용을 목표로 삼는다. 덕을 소유한 사람은 마땅히 기뻐해야 할 것에 기뻐하고 마땅히 괴로워해야 할 것에 고통을 느낀다.
- 모든 공동체는 선을 추구하는데, 모든 공동체 중에서도 최고이며 다른 모든 공동체를 포괄하면서 최고선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다른 어떤 국가 또는 정치 공동체이다.

- ① 인간 본성의 목적이 정치 공동체에서 실현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 ② 덕은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것임을 강조한다.
- ③ 실천적 지혜는 중용을 파악하게 해 주는 품성적 덕임을 강조한다.
- ④ 행위자가 성품보다 추상적 도덕 원리를 중시해야 함을 강조한다.
- ⑤ 모든 행위와 감정에서 항상 중용 상태를 찾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34.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2018 6평 19번)

(가)	<p>갑: 모든 사회적 기본 가치가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최초 상태가 있다고 하자. 만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함으로써 가장 불운한 계층의 처지가 최초 상태에 비해 개선된다면, 그러한 불평등은 정의에 부합한다.</p> <p>을: 모든 것이 매매되고 모두가 같은 양의 돈을 갖는 최초 상태가 있다고 하자. 이러한 단순 평등 상태는 자유 교환으로 결국 불평등해지므로, 사회적 가치들이 고유한 영역을 갖는 복합 평등 상태가 정의에 부합된다.</p>
(나)	

<보 기>

- ㄱ. A: 정의의 원칙은 가상적 최초 상황에서 도출되어야 하는가?
- ㄴ. B: 정의의 제2원칙은 제1원칙의 위반을 교정하는 원칙인가?
- ㄷ. C: 분배적 정의와 관련되는 모든 가치들은 사회적 가치들인가?
- ㄹ. C: 정의의 세분화된 영역들을 하나의 영역으로 통합해야 하는가?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35. 다음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2018 6평 18번)

특정한 사회에 들어가겠다는 어떤 사람의 명시적 동의가 그를 그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만든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또한 어떤 정부의 영토 일부를 소유하거나 향유하는 자는 그럼으로써 묵시적 동의를 한 셈이며, 그러한 향유를 지속하는 동안, 그 정부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정도로 그 정부의 법률에 복종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의 법률에 복종하며 살면서 그 법률이 제공하는 특권과 보호를 향유한다는 사실이 그 사람을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 ① 국가의 구성원은 모두 정치적 의무를 지니는가?
- ② 묵시적 동의만으로도 정치적 의무가 성립하는가?
- ③ 정치적 의무의 성립 근거는 개인의 동의에 있는가?
- ④ 국가의 보호를 받는 자는 모두 그 국가의 구성원인가?
- ⑤ 국가의 영토 일부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동의인가?

36.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18 수능 19번)

(가)	<p>갑: 사회의 가치들은 고유한 분배 영역을 구성하며, 각 분배 영역에는 특정한 기준과 제도들이 있다. 어떠한 분배 영역의 가치도 다른 분배 영역의 가치에 의해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p> <p>을: 사회적 기본 가치들 사이에 대한 선호를 기준으로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은 서열적으로 배열된다. 이는 기본적 자유와 경제적·사회적 이득의 교환이 허용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p>
(나)	

<보 기>

㉠. A: 정의로운 사회에도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는가?
 ㉡. B: 분배 영역들 간의 경계는 안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가?
 ㉢. B: 상이한 사회적 가치를 상이한 기준으로 분배해야 하는가?
 ㉣. C: 사회적 이익을 위해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가?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정답>

1	①	2	⑤	3	④	4	⑤	5	③	6	②	7	③	8	⑤
9	③	10	③	11	①	12	②	13	②	14	⑤	15	②	16	①
17	⑤	18	③	19	①	20	④	21	④	22	②	23	②	24	②
25	④	26	④	27	④	28	②	29	⑤	30	⑤	31	④	32	③
33	①	34	①	35	④	36	②								